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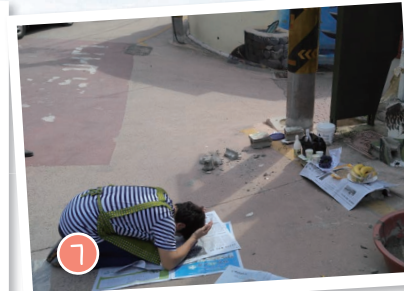
공감

행복한 날뽕골 마을신문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지금 서문이 생긴 자리에 6통 방범초소가 있었어요. 당시 6통 통장님이셨던 권중만씨와 함께 주민들이 돈을 모아 초소를 짓고 주민들이 돌아가며 각 통을 지켰었죠. 시간이 흘러 이 초소는 동네 경로당이 되어 오가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었어요.



행복한 날피골 만들기 사업을 하며 달성토성 서문을 만들기 위해 초소를 철거하게 되었어요. 당시 초소에 그려졌던 청어샘 그림은 권기주 작가님이 날피골에서 작업한 제1호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이 철거되는 것이 아쉬웠던 작가님과 주민들은 서문의 맞은편 벽에 새롭게 청어샘 벽화를 그리고, 초소의 문과 옛 간판을 보관하였다가 2017년 7월 당시 초소 맞은편 붉은벽돌 집 앞에 전시를 하였어요.



시간의 흐름만큼 많은 것이 변한 날피골. 하지만, 옛 기억을 간직하고 추억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기에 따뜻한 오늘날의 날피골이 되지 않았을까요? 알고나면 더 보이는 사랑스런 우리동네를 한바퀴 돌아보아요



영남가남도



6월



6.26

마을문화해설사 선진지 견학
"수성구, 동구"



6.28~8.28

인동촌 아나고 목자골목
맛개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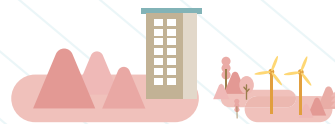


8월



8.1~10.14

벽화&목공장인 양성교육(심화반)



9월



9.18

선진지 견학
"부산 산복도록 르네상스"



9.6~10.18

주민참여 마을학당(심화반)





9.5~11.28
바리스타 양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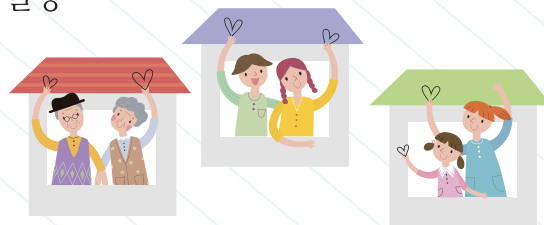
10월



10.25
신나는 예술여행 및 날피영화제



10.23~12.27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11월



11.7~11.30
마을문화해설사 보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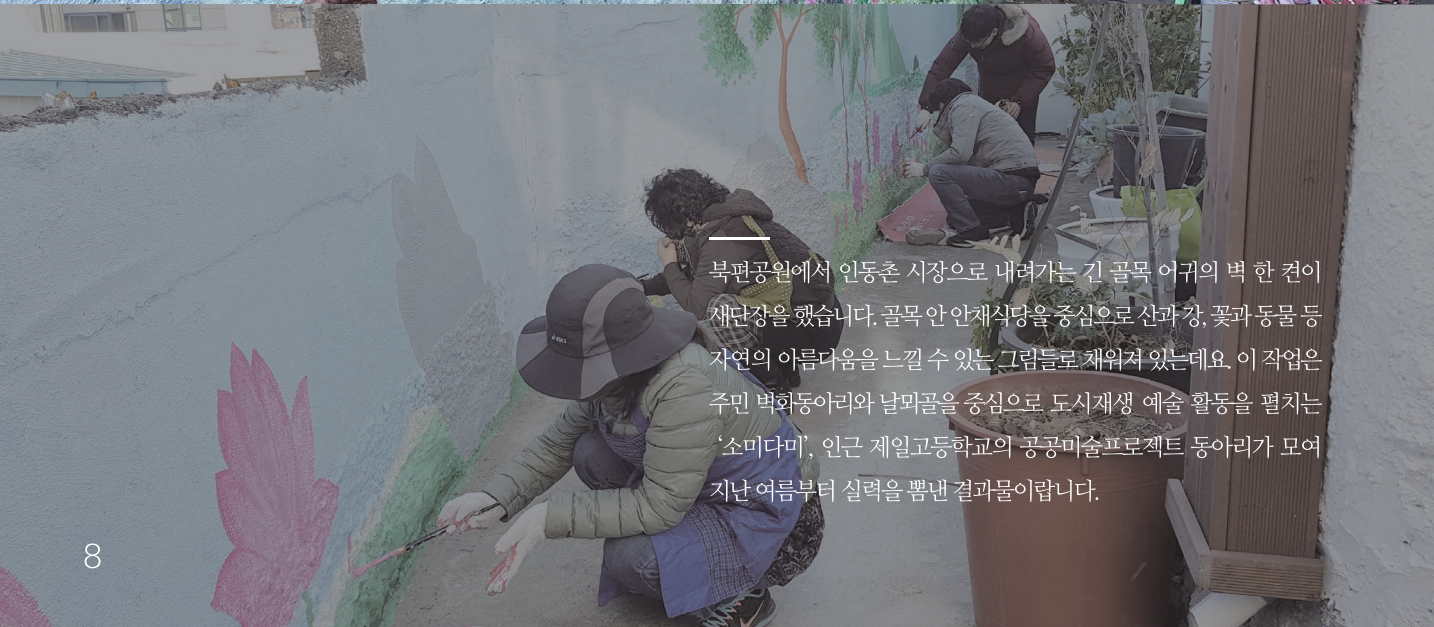
11.9
달성토성마을 협동조합 창립총회

12월



12.4
달성토성마을 다락방 개소식





북편공원에서 인동촌 시장으로 내려가는 길 골목 어귀의 벽 한 칸이 새단장을 했습니다. 골목 안채식당을 중심으로 산과 강, 꽃과 동물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림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작업은 주민 벽화동아리와 날피골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예술 활동을 펼치는 '소미다미', 인근 제일고등학교의 공공미술프로젝트 동아리가 모여 지난 여름부터 실력을 뽐낸 결과물입니다.



2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달성토성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달성토성마을의 협동조합인데요.

지난 세 달여 간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함께하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마을 앞날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나긴 논의와 준비 과정 끝에 지난 11월 9일 '달성토성마을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옥빈 이사를장을 비롯하여 평소 마을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던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개소한 달성토성마을 다락방과 행복한 날피골 공방을 거점으로 다육아트 체험 프로그램 등 기존에 마을에서 진행되던 사업 외에도 북카페 운영 등 새로운 마을 사업들을 직접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북카페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합원들은 두 달여 간의 바리스타 전문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의 앞날을 위해 다양한 곳으로 영역을 확장 할 예정이며, 수익의 일부는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마을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인만큼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4일 **달성토성마을 다락방(多樂房)**이 개소하였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총 3개층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1층은 갤러리와 공방, 2층은 영상물 홍보관과 교육장 겸 공방, 3층은 카페와 작은 도서관, 어린이 누리실이 있습니다.



1층 공방은 주민 공방으로 다육아트 등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갤러리는 전문 작가의 전시 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으로 마을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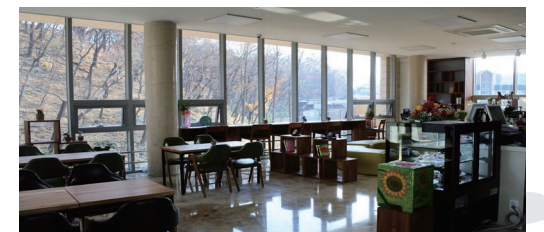
2층에는 마을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한 영상물 홍보관과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주민 교육장 겸 공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는 달성토성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테라스와 어린이 누리실, 작은 도서관 겸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의 경우 달성토성마을 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주민들이 직접 만든 다육아트를 통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또한 이웃간 나눔과 소통을 위한 곳만큼 저렴한 가격에 커피 외에도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 재미있는 책들이 준비되어 있어 커피 한 잔과 책 한 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달성토성마을 다락방으로 놀러오세요~



공감

행복한 날뫼골 마을신문

